

축 사

산하대지에는 봄기운이 가득하고 만물은 생동감에 넘치는 봄입니다. 모든 생명이 새로운 기운을 얻는 계절에 우리 불교계에서 누구보다도 생명사랑에 앞장서셨던 인곡당 법장큰스님의 유업을 기리는 '2010 생명사랑, 자비콘서트'가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큰스님께서서는 이사(理事)와 사사(事事)에 걸림없는 원력보살이셨으며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심을 실천하셨던 현대의 포대화상이셨습니다. 큰스님은 평소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受受而不濫),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出出而不空)' 큰 바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대중들에게 여러분의 슬픔을 그 바란에 모두 넣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바란에 중생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꺼내 주시던 법장스님은 말 그대로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였으며 포대화상의 현신 이셨습니다.

큰스님은 후학들에게 항상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무사심(無私心)을 강조하시며 "신심이 없으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수행정진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선지종찰 수덕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국 근대 선의 중흥조인 경허·만공스님의 선풍을 진작시키는데도 진력하시는 등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종교지도자로서 그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종교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여 인류평화를 호소하신 일이나 미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인 대화 원칙을 강조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종교의 사명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평양축전에 참석하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설파하시고, 서울에서 개최한 8·15 민족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남북의 화해와 공존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법장 큰스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상생과 화합, 인류평화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장 큰스님의 덕화를 회고하면서 가장 큰 업적으로 기려야 할 것은 바로 생명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큰스님께서 평생 동안 '생명'과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큰스님께서 불교계 최초로 '생명 나눔 실천회'를 설립하고 생명 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방 삼세 불국토의 수많은 부처님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머리와 눈과 손발까지도 아끼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보시하였다'는 보현행원품의 가르침과 같이 큰스님께서 생명 나눔 운동을 전개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셨으며 끝내는 마지막 남은 법구마저 병원에 기증하고 떠나심으로써 생명 나눔의 귀감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원적에 드신지 어언 4년을 넘어 덕숭산의 초목이 다시 푸르러 가는 날을 맞으니, 오고 감이 없는 진리 속에서도 큰스님의 빈자리는 새삼 크고 무겁습니다.

오늘 '2010 생명사랑, 자비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역시 큰스님의 생명사랑 실천을 기리는 일인 동시에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여 '생명사랑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전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되는 동시에 스님의 큰 뜻을 대중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장스님이 온 생애를 거쳐 보여주신 생명사랑의 정신과 생명나눔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와 세계에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와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법장 큰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늘의 이 콘서트를 준비하신 인곡당법장대종사 유업계승재단 설립추진위원회 도신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출연자분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